갤럭시노트4 예판 조기마감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혼수 가전제품 고르는 방법

미래 노벨상 수상자 찾아라

People & Company p/08

아웃도어 '시즌리스' 재킷 인기

Life p/14

Entertainment p/16

감영의 애니 홍보대사 첫도전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제3053호 www.metroseoul.co.kr

17살 고교생 사격 2관왕에

한국 유도가 하루 동안 금메달 3개를 쓸어 담으며 메달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21일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도 경기에서 남자 81kg급의 김재범(왼쪽)이 대회 2연패를 한 것을 비롯해 여자 63kg급의 정다운(가운데)과 70kg급의 김성연(오른쪽)이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감동을 맛봤다. <관련기사 21면> /연합뉴스·뉴시스

무늬만 'LTE 무제한 요금제'

기본제공 소진 뒤 추가 데이터 제공 사실 드러나
소비자원 조사… 알뜰폰 요금 이통3사 보다 비싸

스마트폰 가운데 LTE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82.4%(3868만2000명 중 3189만6000명)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앞다퉈 선전하고 있는 'LTE 무제한 요금제'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가 있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저렴하다는 것을 앞세워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일부 알뜰폰(MVNO) 업체의 해당 요금제가 오히려 이통3사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LTE 무한 데이터 요금제 대부분이 '무한'이라는 어감과 달리 기본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개사와 알뜰폰 업체 가운데 점유율 상위 3개사인 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LTE 요금제 총 223개를 분석한 결과에서다.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게 되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했다.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이나 060*으로 시작하는 전국 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했다.

이통 3사는 소비자의 현명한 통신비 절감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음성통화와 데이터 제공량이 정비례하는 일반 요금제와 달리 개개인의 사용패턴에 적합한 선택형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 이것은 음성 통화나 데이터 사용 패턴이 한쪽으로 치우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요금제' 정보를 가로막고 있었다. 소비자가 통신비 절감을 하려해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막을 설치한 거나 다름없다.

이통 3사 전체가 스마트폰 앱에서 맞춤형 요금제 가입을 못하도록 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에서도 요금제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부 알뜰폰의 경우 이통 3사의 요금제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로 고객을 현혹했다는 것이다.

요금제도 전통적으로는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저렴했다. 하지만 일반 요금제의 경우 CJ헬로모바일 9개 요금제 중에 5개가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요금제보다 제공량에 비해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무한요금제의 경우 SK텔링크의 7개 요금제 전체가 KT보다 제공량 대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 측은 스마트폰 요금제가 소비자의 실제 사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를 500MB 이하 또는 15GB 초과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각각 22.6%, 1.7%이지만 출시된 요금제 비율은 11.7%, 12.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무한 요금제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소비자 1054명에게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 대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과반수(57.3%)가 무한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무한요금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이런 제한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77.3%는 가입 당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적이 있으며, 19.6%는 요금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LTE 요금제 선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요금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알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본인의 사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통신사별로 추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부담금 43%↑ 수령액 34%↓"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존 은퇴자도 3% 삭감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관련기사 2면>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런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윤다혜기자 ydh@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 공개 65년간 334조 절감

젊은 공무원 반발 우려

시행 초기부터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 방안이 21일 공개됐다.

이날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43% 인상하고 수령액은 30% 이상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혁안대로 추진되면 향후 65년간 334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재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무원 계층 간 형평이 나빠서 젊은 공무원과 하급직을 위주로 반발이 쇄도할 우려가 제기된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2조원을 썼으며 올해 2조5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25년까지 해마다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3조6780억원에서 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 절감된다. 다음해에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절감 규모가 늘어난다.

연금학회는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2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재정 절감 효과는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의 2016년 이후 가입기간은 사실상 낸 돈과 이자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뀐다. 낸 돈의 약 1.7~2배를 받는 미래 공무원보다 더 불리해진다.

학회는 후한 연금을 누린 기간이 짧은 2006~2015년 임용자는 2016년 이후 임용자처럼 국민연금과 동등한 제도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배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인천 AG 특집판 '인기' 지난 19일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 현장에서 메트로신문 특집판을 배포하는 모습

한·캐나다 FTA 9년만에 체결

정상회담 후 오늘 서명 … 車업계 수혜 기대

지난 9년여간 끌어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22일 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양국 위성서명식에서 FT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TA는 양국 모두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가 체결한 12번째 FTA로 세계 GDP 대비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59.5%로 확대된다.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세탁기·냉장고 등 가전분야에서 캐나다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ydh@

뉴스&뉴스

새정치 비대위에 문재인·정세균 등 참여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출신인 문재인 의원을 포함, 내부 인사들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번 비대위원 명단에는 문 의원 외에도 당 대표 출신의 정세균 상임고문, 원내대표 출신의 박지원 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안철수 측에서는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올해는 사실상 '제로'

● 정치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지적받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올해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중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 위해 장소를 예약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입법로비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돼 혁신의 대상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쌍둥이 임신' 여군 출산휴가 30일 더 준다

●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을 임신한 여군은 한 자녀 임신 여군보다 앞으로 30일 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에 대해서는 산모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총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캐나다 방문 '환영의 꽃나발'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저녁(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찬 간담회에서 화동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송광용 전 수석, 사실상 경질된 듯

과거 비리로 돌연 사퇴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배경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송 전 수석이 과거 교육계 현장에 있을 때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교육대 총장 등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비리 문제가 최근 불거졌고,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시작일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이 어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송 전 수석은 6월 임명 당시에도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서울교육대 총장 시절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다혜기자 ydh@

'계란 투척' 김성일 의원 처벌되나

경남 창원시가 통계비도종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 시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시가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2계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낸 김종관 창원시 제2부시장을 고발인 대표로 조사하고 창원시의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계란을 투척한 경위를 살폈다.

조만간 김 의원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비중을 두고 있다. /윤다혜기자

밥보다 커피 더 먹는다

일주일에 12.3회 … 배추김치·잡곡밥 뒤이어

커피가 단일 음식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3805명을 대상으로 한 음식 항목별 주당 섭취 빈도 조사 결과 커피가 12.3회로 단일 음식 중 가장 높은 횟수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조사(12.1회) 때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성인 1명이 하루 평균 1.8회나 커피를 마시는 셈이다.

또 배추김치가 11.8회로 2위에 올랐으며 ▲잡곡밥(9.5회) ▲쌀밥(7.0회) ▲기타 김치(4.5회) ▲우유(2.7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커피 섭취가 늘어나면서 커피로부터 얻는 열량도 많아졌다.

본부의 '우리나라 성인의 에너지 섭취량 및 급원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에너지 섭취량 중 커피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먼저 남자는 1998년 0.6%에서 2010~2012년 2.3%로 약 4배 늘어났으며 여자는 1998년 0.6%에서 2010~2012년 2.2%로 3.7배 정도 증가했다.

더욱이 커피 외에도 과일 채소음료 등 다른 음료의 섭취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음료가 전체 에너지 섭취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8년 이후 남자는 2.5배, 여자는 2.3배 많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주식인 쌀밥에서 얻는 에너지는 줄었다. 남자는 46.6%에서 35.1%로, 여자는 46.0%에서 34.4%로 각각 감소했다.

한편 본부는 지난 1998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도입했으며 2007년부터는 전문조사수행팀을 구성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윤세원기자 hoyu36@metroseoul.co.kr

차 없는 거리에서 바둑 한판! 21일 서울시 주최로 세종대로에서 열린 '2014 서울 차 없는 날' 행사에서 1004 나눔 바둑 행사에 참가한 프로 바둑 기사들과 시민이 함께 바둑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촌 범서방파' 와해되나

부두목 등 61명 검거 … 도주 두목도 추적중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김태촌의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각종 유치권 분쟁 현장에 개입하고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를 일삼은 등 혐의로 범서방파 조직 내 서열 2위인 부두목 김모(47)씨 등 간부급 8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태촌이 후계자로 지목한 두목 김모(48)씨와 부두목 등은 김태촌의 출소 시점인 2009년 11월에 맞춰 조직 재건에 주력했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합숙소에서 지내게 하면서 결속을 다졌고, 자체 규율을 어기는 조직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해 김태촌이 사망한 뒤 조직이 와해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 등 합법을 가장, 지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도주 중인 현 두목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특성화고 취업률, 13년만에 진학률 앞질러

선취업 후진학 분위기가 확산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가 13년 만에 상급학교 진학자를 앞질렀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4월 1일 기준 취업률이 44.2%를 기록, 지난해보다 3.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학률은 41.6%에서 38.7%로 2.9%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진학률을 추월했다.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90.6%, 특성화고는 45.3%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직무역량 강화와 취업희망자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고졸자 인식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 북한이 '보복조치'를 언급한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재차 요구한 가운데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5만원권 위조지폐 1300장 발견

서울 강서구 새마을금고서 신고 접수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1300여 장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강서구 화곡6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폐 1351매(6755만원)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위폐는 중소 화장품업체인 A사의 기획이사가 홍콩 거래처 관계자라고 자칭한 한 남성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물품 대금 9500만원의 일부로, 위조 미부 감별을 위한 은색줄이 없는 등 매우 조잡했다. 진폐는 1만원권 276매와 5만원권 246매 뿐이었다.

그러나 A사는 물품 대금을 받을 당시 돈다발 개수만 확인해 위폐가 섞여있는 줄 알아채지 못했고, 이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금고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 CCTV와 이동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동시에 전국 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A사에게 위폐를 건넨 남성의 행적을 쫓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지하철 안전문 설치율 69% 불과"

전국의 지하철 역사 3곳 가운데 1곳은 승강장에 안전문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21개 역사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564곳으로 68.7%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국철 구간에서는 12개 노선 228개 역사 가운데 30.2%인 69곳에만 안전문이 설치됐다.

노선별로 분당선(70.6%), 일산선(50.0%) 등 2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설치율이 절반도 못 미쳤다. 다른 노선은 경인선(45.0%), 과천선(37.5%), 경부선(24.2%), 경원선(25.8%), 안산선(23.1%), 경의선(18.2%) 등의 순이었다. 경춘선과 중앙선, 장항선, 수인선은 안전문이 설치된 역사가 1곳도 없었다.

이노근 의원은 "안전문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치지만 지하철과 국철 운영 기관이 예산 탓에 안전문 설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윤다혜기자

생보재단,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최근 강원도 인제군 서면 신촌생태마을체험관에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개최하고 양구군 3개 마을에 113개의 '농약안전보관함'과 7개의 '제농약용기수거함'을 전달했다. 유석쟁(오른쪽) 생보재단 상임이사가 농약안전보관함을 전달하고 있다. /생보재단 제공

무지개빛 '카오스의 별'

metro Russia

스페인 설지예술가 기증

зажёг у ЦДХ
тную звезду

스페인의 설치 예술가 '오쿠다'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중앙예술센터에 대형 조형물 '카오스의 별'을 기증했다. 오쿠다는 화려한 색감의 예술 작품을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인간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카오스의 별은 금속 구조물에 무지개 빛의 다양한 색상이 입혀진 예술 작품이다.

모스크바 중앙예술센터 관계자는 "카오스의 별은 거리예술 비엔날레 '아르트모스페라'를 기념하기 위해 설치됐다"며 "비엔날레 기간 동안 약 5만 여 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관람하거나 예술 작품을 전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쿠다는 아르트모스페라를 위해 강철과 페인트를 외국에서 공수해 러시아 현지에서 카오스의 별을 만들었다. 오쿠다는 "모스크바의 독특한 분위기가 이 작품을 만드는 데 많은 영감을 줬다"며 "카오스의 별에는 도시와 시민의 감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관람객 발레리아는 "카오스의 별의 형상과 색감은 인간의 극명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 같다. 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강렬하다"며 감탄했다.

/카리나 구루노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노인 학대 '이틀에 한명 꼴'

metro Brazil

브라질 상파울루주 바이샤다 산티스타 지역 노인들이 이틀에 한 명 꼴로 학대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인권 언다 사무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바이샤다 산티스타 지역 노인들의 피해 신고 사례는 116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의 경우 206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플라비아 발렌지누 상투스 지역 노인 SOS 협회 관계자는 "노인들에 대한 학대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들이 버림 받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노인들의 재산을 갖고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지리통계원에 따르면 이 지역에만 약 21만 8000명의 60세 이상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카주 크로이제치 기자·정리=정지연 인턴기자

美 백악관이 뚫렸다!

이틀 연속 무단침입 사건… 오바마 휴가 중 발생

미국 백악관이 뚫렸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 연속 백악관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이언 리어리 백악관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한 남성이 보행자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한뒤 또다시 차량을 타고 진입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출신의 케빈 캐리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불법 침입 혐의로 경찰서로 이송됐다.

백악관 경호실의 또 다른 대변인인 에드 도너번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악의 없는 일"이라며 "전날 발생한 침입 사건에 비해서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텍사스주 출신 남성은 백악관 담을 넘은 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질주, 대통령 관저 현관문까지 도착했다가 경호요원에게 체포됐다. 이 때문에 백악관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두 사건은 모두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냈다.

앞서 9.11테러 13주년인 지난 11일에도 한 남성이 백악관 담을 넘었다가 체포된 적 있다.

줄리아 피어슨 비밀경호국 국장은 19일 침입 사건 발생 직후 백악관 주변의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조선미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여의주는 어디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알프스 [illegible]에서 열린 [illegible] 대회에서 한 출전자가 용모양 기구를 단 채비로 낙하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군 12% 비만, 작전수행 지장

장거리 달리기·행군 등… 육군이 가장 많아

비만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미군이 전체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군 보건 정책 모임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12%가 작전이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비만으로 판정됐다.

비만 병사는 200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장거리 달리기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군의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전투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거운 장비 들기, 장시간 행군 등이 불가능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미 국방부의 자료를 보면 비만 과체중 장병은 육군이 16%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13.5%, 여성이 6.4%로 남성의 비만율이 두 배가량 높았다.

/조선미 기자

"언스쿨링, 큰 용기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야기

■스스로 배우는 정재건 군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학교 밖에서 자신만의 학교를 개척한 친구가 있다.

남들이 모두 다니는 학교가 아닌 그는 언스쿨링(Un-schooling)을 택했다. 집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는 홈스쿨링과는 다른 언스쿨링은 집이나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서 배우는 것을 말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은 같으나 홈스쿨링(Home-schooling)은 부모님의 역할이 크고 언스쿨링은 자신의 역할이 큰 차이점이 있다.

중학교 졸업 뒤 3년째 언스쿨링을 하고 있는 정재건(19) 군을 만났다.

언스쿨링을 하고 있는 정재건 군이 국제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한 활동집을 들고 선보이고 있다.

운동·영어회화·자원봉사·기자단 활동…자기 컨트롤·자신감 중요

◆오히려 남들보다 빠른 길

재건 군은 중학교 1학년 때 안식학년을 통해 언스쿨링을 선택하게 됐다. 안식학년은 교육에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재건 군의 부모님이 먼저 제안했다.

"안식학년을 하게 되면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 해서 1살 어린 학생들과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이내 1~2년 늦고 빠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건 군은 대안학교를 통해 얻은 폭넓은 사이와 가족들의 믿음으로 언스쿨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년 동안 언스쿨링을 하고 있는 재건 군은 언스쿨링을 '자유로움'이라고 정의 내렸다.

"하고 싶은 것을 학교 때문에 당장은 못하고 미룰 수 있는데 다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계획해서 실천할 수 있다."

재건 군은 안식학년과 언스쿨링을 통해 피아노를 배우고 매일 운동장 20~30바퀴를 꾸준히 달리며 총 22kg를 감량했다.

또 중학교 때 영어를 싫어했던 재건 군은 언스쿨링 기간 동안 꾸준한 영어회화 공부로 외국인과의 소통이 가능해졌다.

"영어회화 시작한 지 한달쯤 그린피스 첫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외국인 활동가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재건 군은 이밖에 세이브 더 칠드런 기자단 활동 등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재건 군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자유라는 언스쿨링을 통해 자신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 자신한테 엄해지면 컨트롤하기 쉬워진다."

자신만의 스케줄·계획을 짜는 데는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이 잡히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기도 하고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한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정선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매일 해야 할 두가지를 정해 놨다. 저는 영어회화와 운동을 정했다."

그는 언스쿨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부모님을 100% 설득해야 한다. 확실한 동의가 있지 않으면 부모님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또는 부모님 뜻에 따라가게 된다."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가 최대한 좁혀진 상태에서 시작해야 자유롭고 편안하게 언스쿨링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두번째는 자기만의 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찾는 데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

재건 군은 지난해 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현재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를 지원한 상태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포츠 경영'이라는 자신의 꿈을 찾았고 대학에서 더 깊이 있게 배워볼 계획이다.

"언스쿨링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절대 힘든 것도 아니다.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 된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허창수 회장 "100년 기업 DNA 찾아야"

"100년 이상 장수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장수기업의 성공요인과 이순신 장군의 현장 리더십을 거울삼아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허창수(사진) GS 회장은 지난 19~20일 강원 춘천 소재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GS출범 10주년을 맞아 '장수기업에서 배우는 지속성장 전략'을 주제로 열린 GS 최고경영자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지속성장하는 장수기업이 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허 회장은 "잘 나가던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오늘의 성공 공식이 내일에도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GS그룹도 치열하게 경쟁하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제대로 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장수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울러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균기자

"미래 노벨상 수상자 찾아라"

한화,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사이언스 챌린지 2014' 개최

"미국 인텔사는 자사의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한 인재 중 노벨상을 7명 배출하는 성과를 일궜다. 한화 사이언스챌린지 대회를 '한국의 젊은 노벨상'을 지향하는 국내 최고의 경진대회로 육성해 과학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과학축제로 만들어가겠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이 미래의 노벨상 후보 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4' 대회 본선 경연과 시상식이 18~19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 소재 인재경영원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대회 관계자, 참가 학생, 지도교사 및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4회째인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한화그룹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하는 대표적인 교육기부프로그램이다.

올해 대회는 'Saving the Earth'를 탐구 주제로 에너지(태양광 등), 바이오(질병, 식량 등), 기후변화, 물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치열한 1차, 2차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진출한 20개팀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한화그룹이 미래의 노벨상 후보 육성을 위해 개최한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4' 대회 본선 경연 시상식이 18일부터 19일 이틀간 한화 인재경영원(경기도 가평소재)에서 열렸다. /한화 제공

대상은 서울과학고 2학년 함지훈·이명환 학생으로 구성된 'MacTosh' 팀의 'Water-Activated Cell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Activate·Deactivate Battery의 구현'(에너지분야)을 주제로 한 연구가 차지했다.

박승재 운영위원장(과학문화교육연구소장)은 "대상을 수상한 'MacTosh' 팀은 영롱한 발상은 자유로웠고, 치열한 도전은 아름다웠다"고 평했다.

김연배 부회장은 "인재육성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강한 신념에 따라 국가의 우수 과학인재 발굴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국의 젊은 노벨상'을 지향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청소년 과학경진 대회인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를 개최했다"며 "이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과 영감을 발전시켜 인류의 행복과 증진시키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택균기자 kapt@

한전부지 인수 실패, 전화위복되나

삼성그룹, 전자 등 본업에 충실… '부동산 투자 안해' 이미지 개선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입찰에서 현대차그룹에 밀린 삼성그룹이 뜻밖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를 얻는 데 실패했지만 삼성그룹의 이미지가 오히려 제고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재계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수전에서 삼성그룹의 투자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

삼성은 이번 입찰에 약 4조5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차그룹(10조5500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즉 부지 감정가가 3조3300억원 수준인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물론 삼성은 현대차그룹이 4조5000억원 이상을 써낼 것으로 확신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무리해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은 없었던 셈이다.

'한마디로 적정가에 물건을 사면 좋고 불발이 되도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이번 입찰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모든 그룹을 통틀어 현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곳이 삼성인데 부동산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줘 장기적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전부지 인수 실패가 삼성그룹이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룹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만 해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로 또 한번 대박을 터트리고 있는 애플, 글로벌 경제가 휴대전화 시장에서 1위에 올라선 샤오미 등 중국 메이커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한다.

IT 분야는 연구개발(R&D)에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아 자칫 기업의 역량이 분산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삼성은 한전부지 사업과 관련한 곳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유지·확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이 넉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전부지 인수 실패 이후의 삼성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석상훈기자 ssh@metroseoul.co.kr

중국발 'IT태풍' 美·日 추풍낙엽

전 세계 IT업계에 중국발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IT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소니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적악화로 혹독한 겨울에 접어든 상태다. 반면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뉴욕증시 상장 첫날부터 대박을 터트리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MS는 18일(현지시간) 직원 2100명을 해고하고 실리콘밸리 소재 연구소를 전격 폐쇄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7월 발표했던 1만8000명 규모 감원 계획의 제2단계다. 당시 MS는 1만3000명을 해고했다. 내년 7월까지는 2900명을 추가로 해고할 예정이다.

해고된 임직원 중 상당수는 인수합병에 따라 MS에 입사한 옛 노키아 모바일 사업부 출신이다.

일본 IT를 상징하는 소니 역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소니는 이달 말과 내년 3월 말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니가 무배당 결정을 내린 것은 1958년 상장 이후 처음이다. 이는 2014년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의 실적 전망이 2300억엔(약 2조2196억원) 순손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7월 예상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500억엔 순손실보다 더 나빠져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귀념기자 kim@[illegible]

김치 담그는 중국 대학생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지난 20일 중국 쓰촨성 청두 한글광장에서 열린 '코리안푸드페어 2014' 개막 축하 김치 담그기 퍼포먼스에서 청두 대학생 100여명이 시민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그고 있다. /연합뉴스

예쁜 비행기 그림대회 대한항공은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 격납고에서 '제1회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대한항공 제공

애플 아이폰6 국내 사용자 기대감 커져

호주서 구매 1호 가입자 등장 해외 직구 움직임 증가

애플이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아이폰6 구매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아이폰6는 기존 아이폰5S의 4인치 화면에서 벗어나 4.7인치와 5.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예약판매 하루 만에 400만대를 돌파하는 등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아이폰 모델은 이미 매진됐다. 애플은 공급 물량 대비 수요가 많아 일부 제품은 예약판매 배송이 10월에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아이폰6의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되고 2차 출시국 포함 여부도 불투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를 보다 빠르게 구매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직구가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구매를 위해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한 1호 가입자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의 신제품에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영향도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대규모 보조금이 제한되면 123대란과 211대란 등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보조금(장려금)을 투입, 재고털이를 해오던 국내 제조사들의 마케팅 전략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주로 보조금 액수에 따라 단말기를 구매해왔는데 보조금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 따져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바뤄라도 빨리 손에 넣고픈 애플 매니아들이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서울 중구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애플의 판매장려금 지급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통사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모든 제품에 비슷한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 신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냐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원기자 ysw@

market index <19일>

코스피	코스닥
2053.82 (+6.08)	581.38 (+4.41)

금리(국고채3년)	환율(원/달러)
2.37 (변동없음)	1044.50 (+5.00)

먼저 분양하면 싸다

같은 지역내 처음으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뒤이어 나오는 아파트와 비교해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청약불패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견본주택을 개관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 파크 2회차'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130만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급된 1회차의 분양가는 3830만원이었다.

같은 아크로리버 파크 단지이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3.3㎡당 분양가가 300만원이나 상승한 것이다. 주택형 및 마감재 수준이 달라지면서 분양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1회차 분양권의 평균 프리미엄이 5000만원에 이른다는 점도 반영됐다.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 6월 성남권역 A2-5블록에 공급된 '래미안 위례신도시'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31만원이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로또복권 제615회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13	16	23	40	45	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611,681,250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45,341,187
3등	5개 숫자 일치	1,422,137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illegible]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illegible]
사장 [illegible]
편집국장 조[illegible]
광고문의 (02)721-9851
독자센터 (02)721-9861
[illegible]

은행권 "170만 외국인 고객 잡기 총력전"

새 수익원 부상… 특화점포·전용 상품 잇따라

은행권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고객'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은행들이 외국인 특화점포를 늘리고, 전용 상품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나선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들의 금융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170만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70만명에 달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외국인이 집중 분포된 지역을 분석해 특화 점포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요 영업점과 송금센터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곳은 2005년 이후 문을 열었다.

특히 '이지원 외화송금 서비스'는 지난 2007년 4월 상품 출시와 같은해 11월 특허 등록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160만건을 넘어섰다. 이 서비스는 송금전용 계좌에 송금 대금을 원화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해외송금이 이뤄지는 외환은행의 대표적인 해외송금 서비스다.

외환은행은 또 지난 3월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국관광공사,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외국인 고객 유치 공동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외환은행을 찾는 경우 특별환율우대 혜택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할인 이용권을 제공 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일요 영업점 운영을 경주·울산지역으로 확대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외국인을 위한 휴일영업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혜화동, 광희동, 의정부, 창신동, 발안, 남동클러스터, 광적, 원곡동 외환송금센터 등 8개 휴일 영업점과 포천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일 야간에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송우사거리에 있는 송우지점을 야간 점포로 운영해왔다.

KB국민은행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환율과 송금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품(KB 웰컴 통장), 모국어상담이 가능한 외국어고객상담센터(1599-4477)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KB 웰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김보라기자 kim@metroseoul.co.kr

우리銀 매각 공고 '초읽기'

우리은행 매각공고가 이달 말로 정해지면서 교보생명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경영권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우리은행 보유지분 30%에 대한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다. 나머지 지분 26.97%는 10월 중 소수지분 '희망수량 입찰방식'으로 매각공고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우리은행을 인수하면 수익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교보생명이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6개 금융지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교보생명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 자산 241조에 달하는 우리은행을 인수하면 총 자산 300조원의 5대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야심에 차 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지분 30%를 일괄 인수하려면 자력으로는 힘들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우리은행 지분 30%의 시가는 2조5000억원 수준이지만 교보생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여력은 1조3000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 30%를 인수하려면 3조원의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악사(AXA)그룹과 컨소시엄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illegible]

기업가정신, 공모전 통해 확산

한국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기업가정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기업가, 대학생,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모전은 ▲UCC ▲인쇄광고 ▲CI/캐릭터 ▲사진 등 4개 분야에서 54작품을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눠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11월18일, 19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주간행사'를 통해 시상식 및 수상작에 대한 일반인 대상 전시행사를 갖는다.

'제1회 기업가정신 공모전'은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미래의 창조 ▲위대한 혁신 ▲함께가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5가지 요소를 공모주제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기업가정신 실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3000만원의 상금 규모로 진행되며, 응모 수상에 대한 심잠이 수여된다. 청소년부 입상작은 10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비즈스쿨에서 수여식 및 전시가 이뤄진다. 일반부는 11월17~18일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주간행사 기간에 개최되는 시상 및 전시행사에서 공개된다.

'제1회 기업가정신 공모전'의 정보 및 접수방법은 행사 홈페이지(http://contest.koe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월30일까지다.

/김제균기자

장학재단과 기부서비스 MOU 체결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가톨릭의대동창회, 가톨릭의대동창회장학재단과 기부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이헌일 하나은행 PB사업본부 본부장, 주천기 가톨릭 의대 학장, 이형일 가톨릭의대동창회 장학재단 이사장, 김갑식 가톨릭의대동창회장, 임세신 하나대투증권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모바일 호황 IT·게임주 잘나간다

中 알리바바 美상장… 네이버 등 관련주 급등

글로벌 모바일콘텐츠 호황에 힘입어 국내 게임업체들이 속속 증시로 입성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과 중국 등지의 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이들 업체의 해외 진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잇따라 상장하거나 이를 준비 중이다.

먼저 '쿠키런'으로 잘 알려진 모바일 게임사 데브시스터즈가 다음 달 6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시장에서는 데브시스터즈가 과거 '애니팡' 시리즈 인기에 힘입어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선데이토즈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다음달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데브시스터즈의 공모주식 수는 270만주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4644억~5400억원 규모다.

지난해 11월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선데이토즈는 최근 주가가 공모가(4000원) 대비 5배 넘게 치솟은 상태다. 이같은 업황 열기에 '아이러브커피'로 유명한 파티게임즈 역시 코스닥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업체가 중국과 일본 등지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점도 호재다.

데브시스터즈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한국 계열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의 투자를, 파티게임즈는 중국 대표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의 투자를 유치했다. 파티게임즈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와 중국 진출 제휴도 체결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일본 증시에 상장할 것이란 설이 계속 불거지는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도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네이버의 주가는 라인의 해외 상장설에 최근 6거래일간 13%가까이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알리바바가 지난 19일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으로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알리바바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김현정기자 hjkim@[illegible]

<끊김없는 위성방송>

DCS 서비스 허용 논란 '재점화'

케이블TV-KT스카이라이프 입장차 '팽팽' ·특혜 논란 시비 이어져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 간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허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2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이르면 이달 말께 DCS 임시허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진흥과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고시에 맞춰 DCS 임시허가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DCS는 위성방송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통신국사 단에서 수신해 인터넷 망으로 가입자의 집까지 전송하는 방식이다. DCS를 통한 가입자는 개별 안테나 설치 없이도 인터넷 단자와 셋톱박스 간 선 연결만으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DCS를 이용하면 위성방송에서 발생하는 음영지역, 기상조건에 따른 끊김 현상과 개별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시청권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에선 DCS 서비스 허용은 KT스카이라이프만을 위한 특혜라며 위법 요소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2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이라고 위법 판단을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가 2012년 6월부터 DCS 서비스를 상용화를 한 데 대해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IPTV 방송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정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발간한 정책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DCS 서비스는 새로운 기술이 아닌 단순히 구간별 기술 병용 서비스 내지 종전의 위성기술과 IPTV기술을 혼용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는 신규기술이 아닌 만큼 ICT특별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DCS 허용 문제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법안과 병행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에 DCS만 허용할 경우 DCS는 현행법상 위성방송으로 분류돼 점유율 상한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타 유료방송업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 결국 KT 특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케이블TV와 IPTV는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시장점유율 상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계속되는 케이블TV 업계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의 반발에 오히려 답답하다"며 "기술적 절차나 내용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만큼 법안에 따라 필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 ljy0403@metroseoul.co.kr

30대 그룹 안전·환경 투자 늘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4년 안전·환경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18개 그룹(62.1%)이 올해 안전·환경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그룹(34.5%)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했고 1개 그룹(3.4%)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답했다.

안전·환경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18개 그룹은 이유로 '최근 안전·환경 문제에 관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14개 그룹, 77.8%)'을 가장 많이 들었다. 다음으로 '연초 사업계획과 경영전략에 따른 투자확대(3개 그룹, 16.7%)', '시설 노후화 및 교체시기 도래(1개 그룹, 5.5%)' 순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환경 이슈와 관련, 현재 직면한 어려움은 '관련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부담 증가(13개 그룹, 44.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협력사 관리 및 교육의 어려움(7개 그룹, 24.1%) ▲기관별 중복적 과잉 점검과 현장 조사(4개 그룹, 13.8%) ▲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4개 그룹, 13.8%)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 및 환경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로 '안전 및 환경규제 도입 전 충분한 산업계 의견 수렴(18개 그룹, 6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및 세제지원(7개 그룹, 24.1%) ▲전문인력 양성(2개 그룹, 6.9%) ▲중소기업의 안전·환경 관련 교육·설비 지원(2개 그룹, 6.9%)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기업의 안전 및 환경분야 예상 투자금액은 ▲1조원 이상 2곳 ▲5000억~1조원 3곳 ▲1000억원~5000억원 6곳 ▲1000억원 이하 18곳으로 조사됐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안전과 환경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기업이 안전·환경분야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at@

스키·보드 미리 준비하세요 SK플래닛 11번가(www.11st.co.kr)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자사 큐레이션 커머스인 쇼킹딜(1시)에서 스키·보드 용품을 최대 69%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SK플래닛 제공

삼성 '갤럭시노트4' 예약판매 조기 마감

전작보다 저렴한 가격, 사은품 등 매력

18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가 이동통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약판매 마감일인 25일에 앞서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 노트4 초도물량 3만 대가 거의 소진됐다. SK텔레콤은 예약판매 시작일이었던 18일 9시간 만에 총 1만대의 물량 전체가 품절됐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각각 1만대의 물량 대부분이 판매됐으며 주말 내에 예약판매를 마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출고가를 대폭 낮춘 삼성전자의 승부수가 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4의 예약판매가는 현재 전작보다 11만원이나 낮은 95만7000원이다. 노트1의 출고가가 99만9000원이었고 노트2가 108만9000원, 노트3가 106만7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리즈 중 최저가다. 가격은 낮췄지만 기기 스펙은 이전 시리즈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 때문에 소비자가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품 배터리팩, 삼성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어 핏', 셀카봉, 용블랑 펜 등의 사은 혜택이 커진 것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출고가보다 비싸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가 1개밖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은품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도 갤럭시 노트4의 인기로 조금씩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은 추석 기간 예약 전수건이 하루평균 약 1만건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통사들이 예전처럼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은 탓에 가격이 부담스러워 소비자가 예전만큼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지 않는 분위기다.

갤럭시노트4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어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출시되면 이동통신 시장은 더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로 교체하려는 수요뿐만 아니라 신형 스마트폰 출시 후 낮아지는 기존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혜인기자 hjung0404@

햇과일 소비촉진 할인 판매 하나로클럽 양재점은 21일 추석 이후 늘어난 물량과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시름하는 과수 농가를 돕기위해 햇과일 소비촉진 판촉행사가 열렸다. /하나로마트 제공

“멋지게 변신한 기아차의 구원투수”

시승기

■기아 올 뉴 쏘렌토

기아차의 RV 중 세 번째로 많은 판매량 차지하는 쏘렌토는 2002년 데뷔 이후 벌써 세 번째 모델을 맞았다. 1세대가 89만6003대, 2세대가 119만6814대나 팔리며 히트한 덕에 3세대로 쏠리는 시선은 뜨겁다.

2002년 데뷔해 한창 인기를 누리던 1세대 쏘렌토는 2008년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48.7%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그 상황을 2세대 쏘렌토가 초반부터 인기 몰이에 성공하며 멋지게 만회했다. 2010~2011년에는 2년 연속 국내 SUV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2세대 모델의 끝물 이었던 올해는 전년도보다 23.3% 포인트가 줄어 기아차를 힘들게 하고 있다.

3세대인 올 뉴 쏘렌토가 데뷔한 지금은 시장상황이 더욱 치열하다. 국산차 중 최대 경쟁자인 현대 싼타페를 비롯해 수많은 수입 SUV가 각자의 장점을 내세워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올 뉴 쏘렌토의 제원은 기아차가 원하는 시장에서의 위치를 대변해준다. 차체 길이는 4780mm로 경쟁자인 싼타페(4690mm)와 맥스크루즈(4915mm)의 중간쯤에 자리한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 역시 올 뉴 쏘렌토는

실내공간 넓어지고 편의장비 ‘풍부’
주행안정성 대폭 향상…초반 돌풍

2780mm로 싼타페(2700mm)와 맥스크루즈(2800mm) 사이에 있다. 이는 올 뉴 쏘렌토가 싼타페나 맥스크루즈와 직접적인 대결을 펼치는 대신 두 차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파워트레인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2.0 디젤과 2.2 디젤에 6단자동변속기를 맞물렸다. 배기량이 같은 R 엔진이지만 2.0과 2.2는 최고출력이 2마력 늘었고, 2.2 모델은 최대토크도 0.5kg·m 늘어났다.

초고장력 강판을 24%에서 53%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차중량이 평균 70kg 정도 늘어난 점은 아쉽다. 최근 등장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델들은 공차중량을 늘리는 대신 안전도를 높이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최대토크 구간이 2000~2500rpm에서 1750~2750rpm로 조정되면서 좀 더 넓은 구간에서 순간적인 파워를 끌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변속기와 엔진의 궁합은 매끄럽고 좋은 편이지만, 변속단수를 좀 더 세분화하면 좋을 듯하다. 8단 자동변속기를 쓰는 BMW X시리즈와 9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크라이슬러 체로키에 맞서기 위함이다.

2세대 모델의 마이너 체인지에서 차체 높이를 10mm 낮춘 기아차는 3세대에서 다시 15mm를 낮췄다. 여기에 개선된 서스펜션이 더해지면서 고속 주행안전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2세대 모델은 과격한 코너링에서 다소 불안했으나 신형은 매우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

높아진 정숙성은 차체 하부에 언더커버를 더한 효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 쏘나타(LF)와 마찬가지로 언더코팅은 빠지고 언더커버만 더해진 점이 아쉽다.

올 뉴 쏘렌토는 전방추돌경보시스템과 어라운드 뷰 모니터 어시스트 주행모드 통합제어시스템 등이 국내 최초로 적용돼 안전성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싼타페는 스티어링의 반응만 제어하는 플렉스 스티어만 장착된 반면에 올 뉴 쏘렌토는 엔진과 변속기 서스펜션을 함께 제어해 운전자의 취향에 더 세밀하게 맞출 수 있다.

시승차인 R 2.2 2WD 모델(3917만원)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4km이고 도심 연비는 11.3km인데 이번 시승에서는 11.2km/ℓ를 기록했다.

올 뉴 쏘렌토는 계약 개시 20여일 만에 1만4000대를 돌파했다. 올 뉴 카니발과 함께 기아차의 하반기 이슈 메이커로서 손색이 없는 초반 성적이다.

/정치연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김종겸·김재현 4라운드 우승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후원하는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이하 KSF)이 20~21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시즌 4번째 경기를 치렀다.

104대의 경주차가 출전한 이번 경기는 제네시스쿠페 챔피언십의 더블라운드(4, 5라운드)가 이틀간 열려 시즌 챔피언을 향한 참가자들의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다.

제네시스 쿠페 10에서는 선두 김종겸(서한 퍼플모터스포트)을 15점 차로 뒤쫓고 있는 최명길(쏠라이트인디고)이 데자뷰를 극복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5~6라운드에서 최명길은 더블라운드를 앞두고 서한퍼플모터스포트의 정의철에 25점 차로 뒤져 역전 우승의 기회로 삼았으나 피트스톱 실수로 챔피언 자리를 정의철에게 내어 주고 말았다. 올해 우승 없이 세 개 대회 연속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최명길이 작년의 데자뷰를 극복하며 극적인 드라마를 쓸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치른 4라운드에서는 김종겸이 승리했으며 오일기 장현진 강병휘 최명길의 순서로 골인했다.

지난 3라운드에서 세대시스쿠페 20 클래스의 최대 화제는 상위클래스인 제네시스쿠페 10클래스를 제치고 먼저 체커기를 받은 김재현(쏠라이트인디고) 이었다. 제네시스쿠페 10 클래스 차량들이 우천 상황의 악조건을 만나긴 했지만 이제 20살에 불과한 김재현의 압도적인 레이스는 업계·미디어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는 후문이다.

20일 열린 4전에서 김재현은 대회 역사상 최초의 개막 후 4연승을 일궜다.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회원(록타이트-HK)과 전인호(자넬A)를 큰 점수차이로 앞서고 있어 사실상 시즌 챔피언 자리를 예약한 셈이다.

벨로스터 터보 마스터즈는 외국인 드라이버와 여성 드라이버의 선전, 돌아온 베테랑의 연승 가도 등 흥미로운 스토리를 많이 보유한 클래스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3라운드에서 무려 7대를 추월하며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베테랑 서호성은 개막 후 3연승으로 압도적 선두를 기록하며 노장의 관록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 드라이버 사상 최초로 예선 1위를 기록한 권봄이는 비록 빗길 레이스에서 순위가 뒤처졌지만, 대회 사상 최초의 여성 드라이버 우승의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외국인 CEO 듀오인 데이비드 넥킨 타이어(재규어랜드로버)와 마틴 에드워드 베리도 외국인 최초의 포디움을 노리고 있어 클래스를 보는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대회의 엔트리 클래스인 아반떼 K3쿱 터보 챌린지도 시즌의 반환점을 돌면서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며 긴장감 넘치는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아반떼 챌린지 레이스에서는 이대준이 65점으로 시리즈 포인트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재우가 62점으로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K3쿱 터보 챌린지에서는 이원일이 79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동섭(유레이스 알스타즈)이 64점으로 뒤쫓고 있다. /정치연기자

제네시스 쿠페 10 클래스에서 선두로 질주하는 김종겸(서한 퍼플모터스포트)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기아	쏘울	870	930	1,030	1,190	1,320
	올뉴모닝	–	550	780	830	900
쉐보레	스파크	–	500	690	740	850
현대	아반떼MD		1,060	1,190	1,230	1,440
기아	포르테	850	930	1,010	1,060	1,100
르노삼성	뉴SM3	910	960	1,010	1,180	1,380
현대	YF쏘나타	1,170	1,270	1,230	1,900	1,690
르노삼성	QM5	–	1,600	1,950	2,100	2,320
기아	K5		1,460	1,500	1,710	1,710
현대	그랜저TG	1,140	1,280	1,360	–	–
기아	K7	1,510	1,500	1,770	1,950	2,63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비리 막장 드라마 쓰는 홈플러스

뉴스룸에서
정영일 <생활유통부장>

롯데홈쇼핑에 이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까지 사고를 쳤다. 직원들의 경품 조작에 이어 경영진까지 합세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판이다.

최근 이 회사가 질타를 받고 있는 사건은 직원들의 경품 조작이다. 회사 측이 소비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고급 외제차 등 수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내건 고객 이벤트를 열었지만 내부 직원들의 배만 불려준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 보험서비스팀 정모과장과 공범인 팀원 최모씨와 최씨의 친구 A씨, 경품추첨을 담당한 협력사 직원 B씨 등이 벌인 조작 사건이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의 고객 대상 경품행사에 지인의 명의로 응모한 뒤 1등에 당첨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 총 4대의 승용차 경품을 받아 이를 되판 뒤 현금화해 부당 이익을 남겼다.

홈플러스는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선정은 물론 납품업체 대상 갑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번에는 경영진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사정 당국에 포착되면서 이 업체가 쓰는 '막장 드라마'의 끝은 어디인지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판매하는 데에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과 도성환 사장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 전 회장과 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홈플러스 노조 등은 최근 5년간 경품 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 당 2000원에서 4000원씩 받고 보험 회사 등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장 계산원에게 응모권 한 장당 100원씩을 지급하고, 점포별로 실적 순위를 매기는 등 회사가 직원들에게 응모권 모집을 독려했다는 내부 직원들의 구체적인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경품 이벤트 조작과 판매장려금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사실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되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비리가 살기위해 몸부림 치는 관련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야당, 국회로 들어가라

정론탁설
유병팔 <언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진통 끝에 '문희상 체제'를 만들었다. 7·30재보선 참패 후 깊은 충격 속에 '박영선 체제'를 출범시켰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은 물론 장외 입김이 거세져 분당의 위기까지 몰렸다. 이제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위기를 불러온 요인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 설 땅이 없다. 지지율 하나만 보아도 주목할 만큼 추락했다. 우선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벌인 장외투쟁이나 천막농성은 백전백패나 다시피 했다. 식상한 정치행보가 되었다.

먼저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을 챙겨야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면할 수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세월호 참사로 트라우마 상태에 더해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야당은 지금까지 강경일변도의 투쟁으로 당면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고 세월호 특별법을 붙들어 왔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얼마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일인지 자각해야 옳다. 우선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정석이다.

지금 국회는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다. 우선 국회의원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국정감사를 해야 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내세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인 팽창예산안을 내놓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보다 무려 20조원을 늘린 '수퍼예산'을 편성했다. 명분은 경제회생이라고 해도 재정적자가 우려될 만큼 과다하게 늘린다면 파장이 경계할 일이다.

이러한 견제는 여당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특히 국정감사가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낭비된 비용만도 어림하기조차 어렵다. 야당은 원로 종교계 지도자는 물론 국민 사이에 국회 해산론까지 나올 만큼 악화된 여론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강성 야당'을 이어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신뢰 정당'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데 앞장서 우선 국회부터 정상화 해야 한다.

포토프리즘

하나되는 아시아 퍼포먼스

19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배우 장동건, 명창 안숙선, 배우 김수현 등이 주축이 되어 '하나되는 아시아'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구직자 농락, 사설업체 주의

기자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하반기 공채가 한창인 가운데 구직자를 농락하는 취업 사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각종 취업 커뮤니티에 '○○기업 인사담당자 출신의 자소서 첨삭', '합격자와 함께하는 취업 스터디' 란 글을 띄우고 신청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수업료, 대관료 등의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른다.

물론 진정성있는 일부 스터디 모집 게시글도 있지만, 취업 컨설팅을 빌미로 다단계 회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취업 커뮤니티 정보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다. 포털에 개설된 취업 카페는 주로 개인이 운영하거나 사설업체가 개입하기 때문에 취업 사기를 겪어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취업 커뮤니티 운영자도 어떤 스터디 모집글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골라내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취업 자기소개서와 면접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지원 기업이 직접 주최하는 잡페어에 참가할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는 전직이 아닌 '현직' 인사 담당자가 최신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취업 과정을 설명해준다. 또 소속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채용 박람회와 취업 선배와의 만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다. 모교 출신 합격자의 생생한 합격 노하우는 구직자에게 현실적이고 값진 멘토링이 된다.

돈 들 일 없는 취업 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일정을 체크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하지만 공채 '1승'을 향한 취업 컨설팅의 질과 공신력을 감안하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보상의 마음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애플은 iOS 8의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이전과 다른 특기사항을 발표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를 제외하고 누구도(제조사인 애플 포함) 모바일 기기 안에 저장된 이미지나 문자 등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도 본인 이외에 제3자가 강제로 해당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사생활 보호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구글 역시 새로 발표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이런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기업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자 할아버지 법'에 포함아 쏙 대답이다. 손주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이를 발의한 의원들에 따르면 입법 발의 배경은 지지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경우 모두 손주 한 명당 1억 원의 교육비 정도는 줄 능력이 있고, 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쯤 되니 네티즌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자, 즉 입법 발의한 의원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설 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티즌 수사대이니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실패했다. 307년 만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은 눈물로 가슴을 쓸었다. 세계 언론은 이 결과를 두고 독립에 대한 열망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만심보다는 인정이 중요하고, 민족이나 지역적 정서보다는 경제 손익이 판단의 핵심이었다는 해석이다.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대해 '가슴보다 머리가 앞선 일'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어떤 일이든 결정이 이뤄지면 이득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과 비통에 젖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양면을 가지고 쉼 없이 돌아가는 게 사회다. 이걸 법률적 용어로 보면 배상과 보상의 문제로 직결된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손해를 규정하는 배상, 적법 행위이기는 하지만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보상의 논쟁은 언제나 어렵다. 특히 보상이 그렇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건네야 하는 보상, 의원이 유권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보상, 국가가 국민에게 배려해야 하는 보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감사란 고마워하기를 습관화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보상의 마음이란 감사하는 연령이 쌓여진 사람의 특권이지 싶다.

/[illegible](www.[illegible].co.kr) 대표

온라인쇼핑, 모바일 바람 거세다

"성장 주목"·특화 전략 부심·전용관 오픈

"비중이 10%도 안됐던 모바일이 30%까지 성장할 줄은 예상도 못했죠."(A 오픈마켓 관계자)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조583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4.4%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조1930억원을 기록, 136.9%나 신장했다. 1분기와 비교해 온라인 거래액 신장률은 1.1%에 그친 반면, 모바일은 13.1%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주목해 업계는 작년부터 모바일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올해 모바일 매출 비중이 30%까지 높아졌다.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결제 시스템도 개선되면서 업계는 이 시장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시장이 커진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특화 전략 모색에 재갈음을 내고 있다. 쇼핑 환경 개선은 물론 전용 전문관을 오픈하는 등 모바일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G마켓은 최근 모바일 패션 편집샵 더 룩 을 오픈했다. 소호·SPA 브랜드 등 인기상품을 선별해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한다. 모바일 전용으로 서비스하고, 가독성과 이용성을 모바일에 최적화했다.

지난 2월 오픈한 'e쿠폰관'은 최근 2개월 간, 오픈 첫 두 달 대비 12% 판매가 늘었다. 품목별로 구분해 상품 찾기가 쉽고,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옥션은 모바일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중고장터 앱을 새롭게 개편했다. 에스크로 안전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돈을 떼이거나 엉뚱한 상품을 받는 불상사를 줄였다. 개편 이후 거래도 늘었다. 특히 의류 비중은 작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레저나 스포츠 카테고리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번가는 기존 상품검색·최저가 확인이 불편했던 쇼핑 환경을 개선한 '케로마트'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구매 빈도가 높은 생필품을 카테고리 별로 나열해 쇼핑 때로도를 줄이고, '마이 메뉴' 클릭 시 구매상품과 관심상품을 볼 수 있어 다시 검색할 필요가 없다.

/김수현기자 ksh@metroseoul.co.kr

고객감동 경영 호평

토종 자본 한국식 문화창출 반응 커

위메프

위메프 고객감동팀이 고객에게 전달한 손편지와 선물 /위메프 제공

지난 6월 설치된 위메프 '고객감동팀'의 진정어린 태도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내에서 가장 고객감성이 뛰어난 인재들로 따로 선발된 이 팀은 고객의 불만을 모니터링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월 25건 정도의 감동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올해 신경영을 선언하고 고객만족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밝힌 바 있다. 고객감동팀은 그 약속을 지키는 활동의 일환이다. 이 팀은 민원팀의 불만 접수, 외부채널, 제안하기 등 다양한 채널을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대상자를 정한 뒤 해당 민원이 잘 처리됐는가 끝까지 관리한다고 한다. 최후의 확인 과정이 손편지라는 것이다.

고객만족팀의 진심어린 편지는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잦은 변심에다 불평 글까지 쓰던 고객이 충성 고객으로 바뀌기도 했단다. 불만 글을 스스로 삭제하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고객도 늘었다.

긍정적인 효과는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고객만족센터 김한빛 센터장은 "항상 고객들에게 안 좋은 소리만 듣던 고객만족팀 직원들이 칭찬을 듣게 되면서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됐다"며 "고객감동팀은 말로만 하는 고객만족이 아닌 진심을 담은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는 고객감동경영을 위한 직원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회사 측은 '고객감동경영'은 토종자본으로 형성된 위메프만의 독특한 경영 방식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위메프는 PC·모바일 순 방문자수 1241만 9032명을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순방문자수 1위 기록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트래픽 측정 기관인 닐슨 코리안 클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3사의 PC와 모바일웹 그리고 모바일앱 3개 부문 전체 통합 방문자수에서 위메프는 순방문자 1241만9082명을 기록했다. 쿠팡과 티몬이 각각 1168만1732명과 1113만4820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수도 1400만 명을 넘었다. /정영일기자

혼수 가전 꼼꼼히 살피면 도움

행사기간 이용, 제품별 기준 설정, 리스트 작성

결혼의 계절 가을을 맞아 왔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혼수가전 구입은 구입 후에도 오랜 기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 이에 가전 전문판매점 전자랜드 프라이스킹에서는 알뜰하고 똑똑한 혼수가전 구매 요령을 공개했다.

먼저 제품 구입 전에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신혼 집의 크기나 인테리어 분위기에 따라 선택하거나 맞벌이 부부 혹은 분가 여부 등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가전이 다를 수 있다.

TV는 놓을 공간을 선정한 뒤 쇼파와 선반 등과의 배치, 조화를 생각해 치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 주방가전 등은 유행을 잘 타지 않는 내구재로, 용량과 기본 기능을 중점적으로 선택한다면 경제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 10kg 초반 용량의 세탁기는 매일 빨래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불빨래는 물론 1여주간의 빨래를 한번에 돌리기에도 무리가 없다.

가전제품은 사면 5~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디자인, 내구성, 가격 등의 요소를 따져보아야 한다. 부부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도 먼저 체크해야 한다. /정영일기자

치즈스틱 1000원, 새우버거 1+1

롯데리아, 23~24일 오후 2~10시

롯데리아가 23~24일 이틀간 오후 2~10시 'Ria Day(리아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달에는 치즈스틱과 새우버거를 알뜰하게 만나볼 수 있다.

롯데리아는 리아데이 첫 날인 23일에는 정상가 1900원인 치즈스틱을 약 47% 할인된 금액인 1000원에 판매한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롯데리아의 대표 인기메뉴 새우버거를 1개 구매하면 1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1+1 이벤트를 진행한다.

RIA DAY
9.23.
치즈스틱
1,000

RIA DAY
9.24.
새우버거
1+1

드라마 제작지원 기념 '와인 1+1'

강강술래, 가정간편식 2+1 덤 증정 행사

멤버십 회원 구이메뉴 주문 시 1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www.sullai.com)가 인기리에 방영중인 MBC 수목드라마 '내 생에 봄날' 제작지원을 기념해 10월 3일까지 전 매장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매장에서 와인(카르멘 돌 멘 멜롯) 1병을 주문하면 결제 때 와인(카르멘 돌 멘 카버네쇼비뇽) 1병을 무료 증정하는 1+1 행사 를 벌인다.

또 기존 멤버십 회원고객이 구이메뉴(한식류·메뉴이외 제외)를 시키면 10% 할인 혜택을 주며, 행사 기간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겐 포인트 1000점을 무료 적립해주며 냉면상품권(1매)도 함께 증정한다.

같은 기간 쇼핑몰에서 즐길 수 있는 인기 가정간편식인 강강술래의 찹찹한우떡갈비·흑임자한돈너비아니, 통등심돈가스·고메치킨라돈가스도 2세트 사면 1세트를 더 주는 '2+1 덤 증정 행사'도 이어진다.

드라마가 종영되는 10월 말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sullai)에 시청소감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흑임자한돈너비아니(2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신청글을 올리면 뮤지컬 '조로' 티켓과 도서출판 길벗의 '공감하는 능력 과제프스터디 영어명언 100강' 도서 증정 행사도 체험을 수 있다. /정영일기자

아웃도어 재킷 계절이 없다

날씨 따라 내·외피 탈부착…다양한 스타일로 활용 가능

최근 이상 기후로 봄·가을이 실종돼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웃도어 업계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즌리스(season-less) 아웃도어 재킷을 선보이고 있다.

네파의 도노 쓰리인원(3in1) 다운재킷은 방수 소재 외피와 탈부착 가능한 경량 다운재킷으로 구성돼 다양한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을에는 방수 재킷인 외피만 입고, 조금 추워지면 내피인 경량 다운재킷만, 한겨울에는 내피와 외피를 결합해 입으면 한 벌로 가을·겨울은 물론 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네파 측은 설명했다. 특히 방수재킷과 다운재킷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다.

탁월한 소재의 완전 방수 기능 외피와 이너 패딩 재킷으로 구성된 센터폴의 '막설랑 쓰리인원 재킷'도 눈길을 끈다. 사파리 스타일의 외피는 방수·투습 기능의 소재를 심실링 처리했으며, 내피에는 발열 압축 패딩 충전재를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나다. 세련된 카모플라쥬 프린트라 내피만 입어도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플리스 재킷 역시 가을부터 겨울까지 인기 좋은 아이템이다. 가을철에는 아우터로 가볍게 걸치고, 겨울에는 다운 속에 레이어드하면 보다 따뜻하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젠벅의 본딩 플리스 머플 레이어는 서로 다른 소재의 겉과 플리스를 이중으로 접착해 보온 및 방풍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고급스러운 색감에 튼튼한 배색으로 포인트를 줘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파타고니아의 클래식 레트로-X 재킷은 겉감에 포근한 신칠라 플리스 원단을 사용하고 안감으로는 수분 흡수 기능이 탁월한 폴리에스터로 메쉬 소재를 사용했다. 또한 겉감과 안감 사이에 방풍 투습 기능의 멤브레인 막이 있어 가을철 외투로 착용해도 손색없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작원기자 park@metroseoul.co.kr

가을 집안 '향기'로 채운다

캔들·아로마 등 인테리어 소품 각광

최근 캔들·아로마 등 향기 제품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가오는 가을, 일상을 향기롭게 만들어 줄 아이템을 소개한다.

아로마 멀티숍 아로마코에스는 전 세계 아로마 제품부터 향초, 디퓨저, 홈프레그런스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프로방스 아로마 브랜드 플랑뜨앤파퓸의 사쉐가 인기다. 라벤더를 비롯해 로즈, 바이올렛 등 4가지 향으로 선보인 사쉐는 옷장, 서랍 등에서 방향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사람 모양을 형상화 한 Mr&Mrs의 디퓨저 역시 톡톡 튀는 색상과 10가지의 다양한 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국 캔들 브랜드 아워오운캔들 컴퍼니(OOCC)의 메이슨 기프트 세트는 앙증맞은 사이즈의 미니 메이슨 자 4종을 하나로 묶은 제품이다. 최적의 비율로 배합된 소이 블렌딩 왁스 캔들로 풍부한 향기가 오래 지속될 뿐 아니라 다 쓴 뒤에 용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다.

향기에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입힌 리빙 제품도 출시됐다.

리빙 퍼퓸 브랜드 리뉴잇 컬렉션은 패키지에 토끼·오리·젤리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물과 사물을 깜찍한 일러스트로 표현한 스페셜 에디션 4종을 선보였다.

/신하청기자

"그땐 왜 몰랐을까요. 엄마의 사랑을~"

메트로신문사는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운영하는 티몬과 당선자의 협조를 얻어 추석 명절을 맞이 벌인 '명절 그리고 친정엄마'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작을 소개합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연들을 통해 가족애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마지막으로 임지혜씨의 사연입니다.

딸 임지혜씨(오른쪽)와 엄마 장종선의 과거 사진. /티몬 제공

엄마는 저의 결혼을 죽자 사자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피 말이고 전부여서 쉽게 허락이 안 되었나 봅니다.

무척이나 엄격하시고 늘 제 성적에 집착하셨다고 생각했고, 그런 엄마랑 무척이나 싸웠지요. 매일 미워했습니다.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오른쪽 가슴을 도려내고 힘든 항암치료도 하게됐습니다. 엄마께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서도 저는 저의 뜻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은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똑같은 자리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심각 한 건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저보후 적으로 가는 동안 엄마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모든 게 자기 탓 인양.

저는 괜찮다고 마지못해 얘기를 했지만 그 날 따라 엄마의 반 한쪽 가슴이 눈에 보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3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산후조리를 할 때였습니다. 엄마의 벗은 모습을 우연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멋쩍은듯이 "이거 너가 고등학교 때 입던 속옷이야 기억 나니?"라고 말씀하시고는 웃으시면서 한쪽 가슴에 수건을 집어넣었습니다. "티 안 나지?"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못된 딸이었구나." "여자로서 잃어버린 그 가슴 감싸줄 예쁜 속옷 하나 사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저는 오히려 속옷 좀 사 입으라며 엄마께 핀잔을 주고 말았습니다. 안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 질것 같아서.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난 못 먹어도 자식에겐 맛 있는 걸 먹여 주고 싶고, 난 못 입어도 자식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싶고, 난 이룬 게 없어도 자식만큼은 모든 걸 이루길 늘 기도하신다는 것을.

방긋방긋 웃는 내 아가를 보며 깨달습니다. 엄마도 웃는 어린 저를 보며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방식이 조금은 달랐을 뿐 나도 엄마의 귀한 보물이라는 걸요. 엄마, 고맙습니다.

이화의료원, 비빔밥 만들어 환자 소통

이화여대 의료원이 의료진과 환우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색 행사를 열었다.

의료원은 최근 위·대장암협진센터 개소 4주년을 맞이 이대목동병원 3층 이화쉼터에서 '환우와 함께 만들고 맛보는 건강 비빔밥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순남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권 병원장 등 의료원 의료진들은 환우와 그 가족들과 함께 양푼에 담긴 각종 오색 채소와 밥으로 비빔밥을 만들고 이화쉼터를 찾은 환자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또 병원 로비에서는 방문객과 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글씨에 담아 전하는 메시지-캘리그라피' 증정 행사가 이어졌다.

김광호 위·대장암협진센터장은 "행사는 암을 이겨낸 사람들을 축하하고 현재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들의 완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월경 때 심한 복통, 단순 증후군 아냐

자궁 질환으로 발생 가능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겪어야 하는 월경은 여성의 신체와 정서 발달, 생식 기능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하지만 월경 때는 물론 월경 전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여성의 70~80%는 월경전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 증상이 경미해 특별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중 20~40%는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월경전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두통 ▲사지부종 ▲유방통 ▲복통 등의 신체 증상과 불안이나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다.

약물치료로는 ▲정신작용제 ▲경구피임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등의 요법이 있다.

만약 생경이 시작된 후에도 월경전증후군 증상이 이어진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월경통으로 이어지는 복통은 자궁근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통증이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오랜만의 영화, 쉼 없이 하고 싶었어요”

'설계'로 스크린에 컴백한 **신은경**

드라마 출연하면서도 마음은 늘 영화로
비운의 과거 지닌 인물에 깊은 연민
강인한 이미지 벗어날 새로운 도전 기다려

“친정집에 온 것 같아 정말 좋아요. 쉼 없이 영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마음은 언제나 영화인이니까요.”

4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소감을 묻자 신은경(41)은 들뜬 듯 말했다.

한때 신은경의 주요 무대는 영화였다. 2001년 흥행작 '조폭 마누라'를 시작으로 액션·코미디·로맨스·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였다. 지난 2010년 '두 사람' 을 끝으로 드라마에 매진해온 그는 '욕망의 불꽃'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등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럼에도 신은경은 영화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관객들에게 배우의 감정을 오롯이 전할 수 있는 영화만의 매력 때문이었다.

신은경이 4년 만의 스크린 컴백작으로 선택한 영화는 18일 개봉한 '설계'(감독 박창진)다. 돈과 욕망이 뒤얽힌 사채업계의 뒷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신은경은 복수를 위해 사채업에 뛰어든 여인 세희를 연기했다.

극중 세희는 과거 사채업자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비운의 과거를 지닌 인물이다. 성공과 복수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는 세희는 “세상에는 나 자신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강인한 여성이다. 신은경은 처음 대본을 읽고 난 뒤 세희에 많은 연민을 느꼈다.

“단순히 복수를 그린 오락영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희의 내밀한 심리로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나만 믿고 가야 한다'는 세희의 말이 실제 현실이라면 얼마나 슬플까 싶더라고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독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는 한 달 남짓 촬영을 했다.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짧은 촬영 기간이었다. 배우로서는 캐릭터의 감정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실제 룸살롱에서 촬영할 때는 현장에 남아 있는 술 냄새를 느끼면서 영화 속 상황에 빠져드는 묘한 경험을 했다. 캐릭터 표현을 위해 소위 '텐프로'로 불리는 화류계 여성들을 직접 만나는 등 영화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신은경은 '설계'를 “머릿속에 채워진 걸 비우고 싶을 때 보러간다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배우로서는 연기의 새로움을 다시 느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설계'를 기점으로 배우 신은경의 이전과 이후가 나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의식했어요. 반면 '설계'에서는 오롯이 배역으로만 남아 있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는 어떤 작품이라도 그 인물이 될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신은경을 강하고 센 이미지로 기억한다. 그러나 정작 신은경 본인은 대중들의 반응에 대해 “실제 성격은 정반대”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극중 캐릭터나 일할 때의 모습만 보면 올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해요. 하지만 제 지인들은 저를 '허당'이라고 하거든요.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 센 이미지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배우에게 고정된 이미지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은경은 이마저도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생각한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는 자신의 연기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신은경은 “주위에서 연기를 잘 한다고 칭찬해주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자신의 연기가 지닌 장점이 있다면 “굴곡진 삶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어떤 작품도 다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도 신은경은 배우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

“작품 속의 저는 완벽주의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제가 정반대의 이미지를 연기한다면 그 충격이 엄청날 것 같아요.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끌어내줄 수 있는 감독님이 있다면 그 감독님도 굉장한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 디자인/최승미

슈퍼주니어 월드투어 '대망의 100회'

26개 도시 138만명 동원 "1000회까지 할 것"

슈퍼주니어가 한국 그룹 최초로 월드투어 100회 공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21일 오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슈퍼쇼6 공연 기자회견에서 슈퍼주니어는 "어딜 가든 한국의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공연하겠다"며 "100회를 뛰어넘어 1000회를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슈퍼주니어는 지난 2008년부터 단독 콘서트 브랜드인 슈퍼쇼를 시작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슈퍼쇼6 의 포문을 여는 서울 공연으로 100회를 맞이했다.

그동안 슈퍼주니어는 서울·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는 물론 프랑스 영국 멕시코·칠레 등 유럽과 중남미까지 아우르며 공연을 펼쳤다. 전 세계 26개 도시에서 총관객 약 138만 명을 동원했다. 지난 6년 동안의 비행거리만 지구 10바퀴에 달하는 약 41만 5833㎞에 이른다. 한국 그룹 최초 프랑스 단독 콘서트, 한국 가수 사상 최대 규모의 남미 4개국 투어 등의 기록도 세웠다.

기자회견에서 신동은 "예전에 섹스키스, 핑클 선배님들이 북한 평양에서 공연하는 걸 봤다. 금강산이나 백두산에서 콘서트를 열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중동 지역에서도 공연하고 싶다는 이야기와 함께 규현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가 초청해주면 좋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공연에서 슈퍼주니어는 히트곡과 새 앨범 수록곡 등 총 12곡을 선보였다. 각 멤버들의 유닛 무대, 서울 예술단과 함께 한 난타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로 환호를 받았다.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 주제곡 '렛 잇 고'와 함께 일사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큰 웃음도 선사했다.

한편 슈퍼주니어는 다음 달 29~30일 일본 도쿄돔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할 계획이다. /김민석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마이클 볼튼 '불후의 명곡' 출연

내달 11일 방송…톱 보컬리스트 총출동

팝스타 마이클 볼튼(사진)이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에 출연한다.

마이클 볼튼은 불후의 명곡 최초의 외국인 전설 로 출연한다. 녹화를 마쳐 다음달 11일 방송된다. 마이클 볼튼은 '웬 어 맨 러브즈 어 우먼' '하우 엠 아이 서포즈드 투 리브 위다아웃 유' 등을 히트시키며 전 세계 5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래미 어워드 2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6회 수상 경력의 대표 R&B 소울 가수다.

불후의 명곡 은 매회 명가수를 전설 로 내세워 후배 가수들이 전설 의 히트곡들을 새롭게 해석해 부르며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팝스타가 전설 로 출연하기는 처음이라 큰 기대가 된다"며 "마이클 볼튼이 먼저 출연 의사를 밝히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마이클 볼튼은 지난해 가수와 일반인 모창 가수가 대결하는 JTBC '히든싱어2' 에도 출연 의사를 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불후의 명곡 마이클 볼튼 편에는 가수 박정현, 문명진, 소향, 박재범, 효린, 에일리, 서지안 등이 출연해 가창력 대결을 벌인다. /유순호기자

안재욱 20주년 콘서트

원조 한류스타 안재욱(사진)이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재욱은 다음달 4일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원 와인 데이 안재욱 20th 애니버서리'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20여 년간 배우 겸 가수이자 1세대 한류스타인 안재욱의 역사를 담아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안재욱의 히트곡은 물론 그동안 출연했던 드라마의 OST 등 추억의 시간을 되돌려줄 레퍼토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안재욱은 "벌써 데뷔한지 20년이 흘렀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함보다는 오랜 시간 함께 해준 팬과 한자리에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콘서트 제목처럼 일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느 멋진 날'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순호기자

'별에서 온 그대' 미드로 재탄생

미국 ABC방송 리메이크 제작

김수현·전지현 주연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사진)가 미드로 재탄생한다.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국 ABC방송국에서 파일럿 오더를 받았으며 소니픽처스가 제작사로 확정됐다. 섬드 엔젤 앤 와이어 '다이어리' 등을 집필한 리즈 크래프트와 사라 케인 작가가 파일럿 형태로 대본을 집필하고 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부터 미국 리메이크를 준비해왔고, 좋은 파트너들과 한국 드라마를 미드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내년 초 시즌 오더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사전제 미국 드라마가 되도록 미국 쪽 제작사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B엔터테인먼트 문보미 대표와 박지은 작가는 미국판 리메이크에 EP(executive producer) 자격으로 같이 참여한다.

앞서 미국 리메이크 소식을 전했던 현지 연예신문사 할리우드 리포터는 "'별에서 온 그대'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는 왜 항상 세상을 구해야 하나, 한 여자만을 구하면 안 되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은 이야기에 기반해 미국 리메이크도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SBS에서 방송을 시작한 '별에서 온 그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특히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붐을 다시 지폈다.

미국판 '별에서 온 그대'는 대본작업을 마치는 대로 올 하반기 파일럿 제작과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캐스팅 작업 중이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혜택 가득한 자유
하나 Free

자유여행을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하나Free" 혜택!
모으면 모을수록 커지는 대박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하나Free
모으면할인!

혜택 UP | 하나Free 상품 동시 구매 혜택!

하나Free상품	할인혜택	마일리지혜택
자유여행만들기 해외호텔 +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최대 30%	
항공권 + 해외호텔	해외호텔 10% (단 조식, Ibis Adagio 호텔체인 할인 제외)	5,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5,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총금액의 1%마일리지 추가적립

혜택 조건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66-0223

www.hanatourist.com

이하늬 한국문화 알리미

국제가야금축제 연주자로 참여

배우 이하늬(사진)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가야금 연주자로 변신한다.

이하늬는 오는 26일과 27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2회 의정부 국제가야금 축제에 가야금 연주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연에서 이하늬는 26일 금요일 친어머니이자 가야금 연주가인 문재숙과 문하생들이 함께하는 '가무 동행' 공연에 참여해 가야금 솜씨를 뽐낼 예정이다.

이하늬는 4세 때부터 연주한 인간문화재 전수자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전국 가야금 대회 대상을 휩쓸었으며 금호 영 아티스트로 선정되는 등 국악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배우가 된 뒤에도 뉴욕대와 예일대 등 미국 주요 대학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강연과 연주를 하고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등 가야금 연주자로서의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신이 가진 재능인 가야금, 판소리, 한국무용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고 싶다던 이하늬의 말처럼 이번 무대가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라는 꿈을 준비하고 공주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타짜-신의 손'에서 우사장 역을 맡아 팜므파탈의 매력을 선보였다. /정성호기자

언론 폐부 향한 날카로운 손길

film review

실화 흥미롭게 풀어낸 장르적 접근

■제보자

"진실과 국익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불법 채취된 난자가 이용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던 방송국 PD 윤민철(박해일)은 과거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했던 심민호(유연석)를 만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다. 복제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접한 윤민철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취재에 나선다. 권력과 언론, 나아가 국민과도 맞서야 하는 힘겨운 싸움의 시작이다.

'제보자'(감독 임순례)는 "본 영화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으니 영화적으로 재구성된 픽션임을 밝힌다"는 실화 바탕의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자막으로 막을 연다. 그러나 관객들은 이 영화를 쉽게 픽션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시작과 동시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관객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사건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제보자'는 2005년 한국 사회를 들썩거리게 만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을 다루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성공과 명성만을 추구하던 한 사람의 욕망이 진실보다 국익을 우선시 하는 권력과 언론의 어두운 면과 만나면서 탄생한 대담한 사기극이었다. 임순례 감독은 이 사건을 시대적인 배경과 인물 이름만 바꾼 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재현한다.

'제보자'의 가장 큰 힘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실화를 장르적인 접근으로 흥미롭게 풀어낸다는 점이다. 영화는 캐릭터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시작하는 곧바로 사건과 갈등을 만드는 속도감 있는 전개를 보여준다. 진실을 사이에 둔 윤민철 PD와 이장환 박사의 갈등은 스릴러 영화와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배우들의 열연과 캐스커 이준오 음악감독의 세련된 사운드트랙도 인상적이다. 이 모든 것들이 현란하게 어우러져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주제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다만 윤민철과 이장환이 마주하는 영화 후반부에서 장르적인 쾌감이 크지 않은 점은 아쉽다.

"우리 사회의 진실을 파헤치는 한 언론인의 집요한 투쟁을 그리고 싶었다"는 임순례 감독의 말처럼 영화의 문제의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언론의 폐부에 있다. 정권 정당이 바뀐 2014년, 2005년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기도 하다. 그것은 어쩌면 이념을 떠나 권력과 언론 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부조리함을 비판하려고 한 의도일지도 모른다. 12세 이상 관람가. 다음달 2일 개봉.

김영희 애니 홍보대사 첫 도전

다국적 합작 '정글히어로' 참여

개그우먼 김영희(사진)가 '정글히어로'로 애니메이션 홍보대사에 첫 도전한다.

김영희는 최근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끝사랑'을 통해 각종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인간의 조건' 에도 출연하며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 김영희는 '정글히어로'의 홍보대사에 기꺼이 참여했다.

"생애 첫 애니메이션 홍보대사를 하게 돼 영광이다"라는 김영희는 "평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정글도 도시도 파괴되고 있음을 느꼈다. '정글히어로'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희는 정글히어로 홍보대사로 무대인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글히어로'는 슈퍼 치킨 캐빈을 꿈꾸는 인간 악당에 맞서는 동물 친구들의 좌충우돌 정글 시수 프로젝트를 그린 작품. 한국·미국·멕시코 등 다국적 제작진이 협작한 글로벌 애니메이션으로 다음달 2일 개봉한다. /정성호기자

한국영화 숨고르기… 외화 약진

'메이즈 러너' '비긴 어게인' 쌍끌이 흥행

여름부터 추석 연휴까지 강세를 보이던 한국영화가 보기좋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할리우드 영화들이 주말 극장가를 점령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할리우드 영화 '메이즈 러너'와 '비긴 어게인'은 19일 금요일과 20일 토요일 이틀 동안 박스오피스 1위와 2위 자리를 나란히 지켰다.

지난 18일 개봉한 '메이즈 러너'는 개봉 첫 주말 동안 누적 관객수 48만2178명을 기록하며 5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같은 날 개봉한 신작들 중 볼거리를 내세운 유일한 대작이라는 점이 흥행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양성 영화로 개봉해 2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한 '비긴 어게인'은 20일까지 누적 관객수 231만을 기록하며 선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영화 '메이즈 러너'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추석 연휴 극장가 흥행을 이끌었던 '타짜-신의 손'은 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누적 관객수는 349만여 명이다. 개봉 7주차까지 뒷심을 발휘 중인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전국 847만을 기록하고 있다. /정성호기자

축복받은 와인산지 미국 워싱턴주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미국 워싱턴 주는 신이 축복한 와인 신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와인 생산의 역사는 50년 정도로 짧지만 성장률은 가장 높다.

그 해답은 바로 자연환경에 있다. 워싱턴 주는 기후적으로 캐스케이드 산맥을 경계 삼아 동서로 양분된다. 와인 산지는 동쪽에 주로 형성되어 있다.

시애틀 시애틀만 보아도 겨울철 4~5개월 동안 거의 쉼 없이 비가 내린다. 연중 맑은 날이 흐린 날보다 적을 정도다. 포도나무 재배로는 최악의 환경이다.

반면 캐스케이드 산맥만 넘으면 기후는 사막에 가깝다. 1년 내내 맑은 날이 이어진다. 과일 재배에 최적이다. 이 곳의 체리 사과 살구 등은 당도 높기로 유명하다. 포도도 예외가 아니다.

워싱턴 주의 기후는 두 가지 요소 즉 북태평양 해류와 산맥 지형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콜롬비아 강이다.

북태평양 해류는 워싱턴 주에서 남·북으로 갈라지며 알래스카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로 나뉘어 흐른다. 해류로 인해 밀려드는 습한 바람이 시애틀을 비롯한 해안가에 다량의 비를 뿌리는 것이다.

비는 그러나 서쪽에만 내린다. 이는 두 개의 산줄기 즉 올림픽과 캐스케이드 산맥 때문이다. 습한 바람은 서쪽 올림픽 반도에 우뚝 솟은 올림픽 산맥을 만나 한 차례 비를 거른 후 다시 캐스케이드 산맥을 넘으며 나머지 습기를 토해 낸다. 워싱턴 주의 상징인 레이니어 산과 지난 1980년 봄 화산 폭발을 일으켰던 세인트 헬레나 산이 캐스케이드 산맥의 줄기에 있다.

문제는 동부 지역에 비가 너무 없다는 점이다. 1년에 2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콜롬비아 강이다. 강은 워싱턴과 오리건 주 경계를 이루며 흐르는데 워싱턴 주의 경우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발원한 지류 규모가 크다. 이 물줄기를 활용해 포도나무에 약간의 관개를 한다.

워싱턴 주는 현재 700개에 달하는 와이너리가 국제 품종을 중심으로 명품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위도는 높지만 레드와인 특히 메를로와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이 뛰어나며 화이트와인의 경우 샤르도네 품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echo@metroseoul.co.kr

날씨

9/22月 일출시각 06:19 일몰시각 18: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제주, 강릉, 울릉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뇌졸중은 일교차가 큰 가을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운동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이른 아침에는 가급적 외부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강북삼성병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등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3		5					
	1	4		7			8	
		2				7		9
	2	9	1	8				
			8		7			
				9	5	1	2	
8		5				2		
	7			4		3	5	
					2		8	4

5		3	1					
	9			6			5	8
4		8	3	8				
					8	1		
6	3						4	2
		2	9					
				5	1	7		6
3	4			7			2	
					3	4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펜사 스도쿠 프리미어
(저자 고든 크레크 펭고 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직장 관두고 동업준비 중 잘 될까요
철저한 준비단계 거치면 결실 맺어

Q 충북에 여자 83년 5월 17일 음력 오전 3시쯤생

안녕하세요? 저는 메트로 신문 독자입니다. 선생님의 명쾌하고 정확한 사주풀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83년생 음력 5월17일 현재 32살 직장 여성입니다. 회사 분위기 상 직장을 계속 오래 다닐 수 없는 직장이라 내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장사)을 시작할까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내년에 시작해도 될는지요? 또, 하게 되면 아는 동생과 함께 할 생각인데 동업을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남자와 결혼 운은 어떠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인생길에서 3번의 기회는 있다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회는 3번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늘 오기 마련입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기에 3번이라고 엄명 했는지도 모릅니다. 2015~2017년 까지 융앙의 순간은 옵니다. 그러나 돈벌이가 순조롭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업을 멀리하겠지요. 아닙니다. 운명의 선에서 그 후 재물 운이 오기에 수순을 밟아 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기회가 위기가 되기도 하고 위기는 곧 기회 이기도하나 손실과 고뇌가 지나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주구조에 천덕(天德)과 월덕(月德)의 길성이 있어 좋은 일인데 정재(正財) 작식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이 2017년 지나서 손쌀 하므로 그 시기가 지나서 재물을 던지게 합니다. 서비스업은 무난하지만 투기적인 사업 운은 미약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말씀드렸으나 중요 한 것은 자신의 성미에 맞고 하고 싶은 의욕과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창업하기 전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해주는 곳의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영하는 요령과 법률 세무적 지식을 배우고 사업장 개업 전에 사전에 입지 조건이나 주변의 상권 분석은 해야 하며 사업자로서의 고민 등을 깊이 있게 갖춰야 합니다. 사업을 일단 해보자 가 아니라 성공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고 나서 시작 하도록 하세요.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만 일락서산 日落西山 해가 산으로 넘어감에 백호(白虎)가 겹치니 무슨 일이든지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소 진정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생일시에 백호(白虎)로 본의 아니게 좋은 인연을 멀리하고 고독하기에 이성 운은 2017년이 되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2일 (음 8월 29일) 김광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승산 없는 일은 포기할 것. 60년생 야심찬 계획은 불발된다. 72년생 미래의 성장 동력에 투자하라. 84년생 혼자 만족할 경사가 있으니 기대하라.

소 49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1년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할 것. 73년생 더 손괴 발이 바빠야 가족이 편안하다. 85년생 타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라.

호랑이 50년생 비우지 않지 적당히 보라. 62년생 운기가 호전되어 일이 잘 풀린다. 74년생 돈 문제는 유비무환이니 대비할 것. 86년생 허식 개웃어 행운을 부른다.

토끼 51년생 작은 경사에 화색이 돈다. 63년생 주변과 충고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75년생 추진 중인 일은 탄력을 받는다. 87년생 불만 있어도 목소리 톤을 낮춰라.

용 52년생 나이 초월한 친구 덕에 야호~ 64년생 계획대로 일은 풀려 나간다. 76년생 필요할 땐 적과도 손을 잡아라. 88년생 좋은 일이 이곱이 거곤되어 유쾌하다.

뱀 53년생 돈의 약발은 잘 받는다. 65년생 어렸사람 선비독 주변 처동 걸어라. 77년생 썸인 계획은 판이 너무 커진다. 89년생 설득력이 떨어진 주장은 과감히 걷어라.

말 42년생 자분장라는 신중할 것. 54년생 옛 동료와 회포를 푸니 즐겁다. 66년생 결정이 난 일은 토를 달지 말라. 78년생 오늘의 한 걸음은 내일의 열 걸음 된다.

양 43년생 기분이 좋아 만사 즐겁다. 55년생 편견의 사람 냉대 않도록 조심~ 67년생 준비 없이 나서면 무용지물한다. 79년생 움직이는 일엔 신중에 신중할 것.

원숭이 44년생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 56년생 귀인 만나 식었던 열정이 뜨거워진다. 68년생 막다른 골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 80년생 불난 인간을 달래는데 신경 써라.

닭 45년생 자손에 경사가 생긴다. 57년생 어렸사람 의견 묵살 말라. 69년생 꼬였던 일은 해법을 드디어 찾는다. 81년생 과욕을 부려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개 46년생 돈 때문에 틈워 잃지 말라. 58년생 믿고 있는 야심은 다스려야 한다. 70년생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일손이 안 잡히는구나. 82년생 간절하면 뜻을 이룬다.

돼지 47년생 복덩이가 제 발로 찾아온 격이다. 59년생 시나리오대로 일은 풀리니 가왕 쪽. 71년생 조건이 많으면 손해가 올거피하다. 83년생 과도한 욕심은 피하라.

메치고… 찌르고… 골든데이 '번쩍'

유도 전날 부진 딛고 3종목 정상… 펜싱 전종목 싹쓸이

유도 남자 81kg급 결승의 김재범(위)과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 나선 구본길 아래 왼쪽 /연합뉴스

유도와 펜싱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초반 한국의 금밭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첫날 동메달만 3개를 따내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던 유도는 대회 이틀째인 21일 금메달 3개를 쏟아냈다. 전날 금메달 2개를 모두 수확한 펜싱은 이틀째에도 2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두혼의 대명사' 김재범(한국마사회)은 21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유도 81kg 급 결승에서 레바논의 나시프 엘리아스에 지도승을 거뒀다. 2010년 광저우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2개 대회 연속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몸의 절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악조건에서도 투혼을 발휘하며 금메달을 딴 김재범은 유도 역사에 새 기록들을 더해가고 있다. 김재범은 전기영(1990년 1994년), 황희태(2006년 2010년)에 이어 한국 유도 선수로는 세 번째로 2개 대회 연속 우승자가 됐다.

앞서 런던 올림픽 금메달로 유도 그랜드슬램(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도 달성했다.

김재범은 계속되는 부상과 더 이상의 목표가 없다는 동기부여 부족으로 이번 아시안게임 성적에 우려를 샀지만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여자 63kg 급 정다운(25·양주시청)과 70kg 급 김성연(23·광주도시철도공사)은 첫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유도의 차세대 간판으로 존재감을 높였다.

정다운은 결승에서 중국의 양쥔샤를 상대로 경기 시간 4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고 서든 데스 방식의 골든 스코어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정다운은 접전 끝에 회심의 엎어치기가 유효 선언을 받으며 경기를 끝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4강에 진출하며 깜짝 스타로 떠올랐던 정다운은 아시아 정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연은 결승에서 일본의 아라이 지즈루를 절반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땄다. 역대 전적 2패로 밀리는 아라이를 상대로 초반부터 강하게 공격을 시도하다가 경기 시작 44초 만에 어깨 메치기 기술로 절반을 따냈다. 김성연은 아라이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 나선 구본길은 세계 랭킹 1위의 실력자답게 김정환(31·국민체육진흥공단)을 15-13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남현희(33·성남시청)에 가려 '만년 2인자'에 머물러 있던 펜싱 여자 플뢰레의 전희숙(30·서울시청)은 마침내 늦깎이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사실상의 결승전이었던 준결승에서 남현희를 15-7로 물리쳤고 결승에서는 리 후이린(중국)에 15-6으로 승리했다.

대회 개막 후 이튿째 경기가 끝난 가운데 한국은 금메달 12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중국(금12 은9 동11)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이틀 연속 메달 순위 1위를 지켰다. 일본이 금메달 7개로 3위에 올랐고,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따낸 북한은 6위를 달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한국 남녀 축구 금 향해 순항

조별리그 3연승 16강·8강 진출

한국 축구 남녀 대표팀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해 순항했다. 남녀 대표팀 모두 조별리그 3연승을 올리며 조 1위로 각각 16강과 8강에 진출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끌고 있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 라오스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전반전 41분 이종호(전남 드래곤즈)의 선제골로 승세를 잡았다. 이어 후반 44분 김승대(포항 스틸러스)의 골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남자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전승을 거둬 승점 9점으로 조 1위를 지키며 16강에 진출했다. 같은 조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말레이시아를 꺾고 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랐다.

오는 25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B조 2위 팀과 8강 진출을 놓고 경기를 펼친다. 중앙아시아 강호 우즈베키스탄이나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홍콩이 유력한 상대로 손꼽힌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도 같은 날 인천 문학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몰디브를 상대로 13-0 대승을 거뒀다. 전반 9분 정설빈(현대제철)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에 가세해 승리를 챙겼다.

여자 대표팀은 조별리그 전승을 기록해 A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오는 26일 B조 3위나 C조 3위 가운데 성적이 더 좋은 쪽과 승부를 펼치게 된다.

/장병호기자 solanin@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한국	12	10	9
2	중국	12	9	11
3	일본	7	8	10
4	몽골	2	2	4
5	카자흐스탄	2	1	5

<21일 현재>

박태환 AG 자유형 200m 동메달

박태환이 21일 인천 문학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전에서 3위로 들어와 전광판을 바라보며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판 100m 아쉬움… 자유형 400m 금 재도전

박태환(25·인천시청)이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200m 3연패를 아쉽게 놓쳤다.

박태환은 21일 인천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5초 85의 기록으로 일본의 하기노 고스케(1분 45초 23), 중국의 쑨양(1분 45초 28)에 이어 3위에 올랐다.

2006년 도하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태환은 3회 연속 우승은 이루지 못했다.

예선 성적은 쑨양이 1분 46초 90으로 전체 1위, 하기노가 1분 48초 99로 2위, 박태환은 1분 50초 29로 4위였다. 6레인에서 결승을 치른 박태환은 0.64초로 8명 중 가장 빠른 출발 반응 속도를 보였다. 초반 50m 구간 기록도 24초 57로 가장 빨랐다. 그러나 100m 구간을 돌 때 51초 41로 쑨양(51초 26)에 1위 자리를 내줬다.

150m 구간까지에서도 쑨양에 0.04초 뒤지며 막판 역전을 노렸다. 하지만 150m 구간을 돌 때 1위 쑨양에 1초 가까이 뒤져있던 하기노가 거세게 치고 올라왔고 결국 1위로 골인했다.

경기 후 박태환은 "기록이 안 나와서 아쉽다. 많이 힘들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좋은 기록이 나왔다면 좋은 메달도 나왔을 텐데 아쉬운 면이 많다"며 "사실 전반에 페이스가 좋았는데 후반에서는 다소 처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경기를 되짚어 봤다.

6번 레인을 배정받은 것에 대해 박태환은 "5번을 받으려고 예선 때 페이스를 조절하긴 했으나 준비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는 것 같다"며 "마이클 볼(호주) 코치로부터 목표 구간 기록을 따로 받지는 않았고,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23일 열릴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다시 한번 종목 3연패에 도전한다. 그는 "400m는 내가 올해 랭킹 1위지만 쑨양이 세계적인 선수이고 경쟁하는 사이니 좋은 경기를 펼쳐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세계 챔피언이 인정한 17세 사수

김청용, 진종오 꺾고 AG 사격 최연소 금…첫 2관왕

무서운 신예 김청용(17·흥덕고)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따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청용은 21일 인천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결선에서 201.2점으로, 199.3점을 기록한 팡웨이(중국)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김청용은 이날 앞서 열린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진종오(35·KT), 이대명(26·KB국민은행)과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청용은 하루에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동시에 한국의 첫 2관왕에 올랐다. 또 한국 사격 사상 아시안게임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김청용은 총 20발을 쏘는 결선에서 첫 4발을 모두 10점대에 명중했다. 7번째 발에서 10.4점을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섰고, 11번째 발에서는 만점인 10.9점을 명중시키며 관중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후 팡웨이와 선두를 다투기도 했지만 17번째 발 이후 격차를 벌이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지켜냈다.

17세의 나이로 2관왕이 된 김청용은 사격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따내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올해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돼 국제 대회 경험도 거의 없다. 국내 고등부 대회를 싹쓸이한 그는 8월 난징 유스올림픽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따며 세계무대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이달 초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이 성인 국가대표들과 출전한 첫 국제 대회였다. 그는 당시 진종오, 이대명과 팀을 이뤄 10m 공기권총 단체전 은메달을 따내며 일찌감치 한국 사격을 이끌 새 얼굴로 가능성을 알렸다.

반면 이번 대회 개인전 결선에 함께 오른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오는 179.3점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땄다. 네 번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진종오는 개인전에서 하나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했다. 이미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챔피언에 오른 그지만 유독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다.

개인적인 아쉬움이 컸지만 진종오는 18살이나 어린 후배의 성장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다.

진종오는 "새 영웅 탄생을 많이 축하해달라. 오늘 주목은 여기 영웅이 더 받아야 한다"며 김청용에게 축하를 보냈다. 이어 "한국에서 하다 보니 부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단체전 금메달 목표 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힘든 경기 운영을 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진종오를 평소 우상으로 꼽아온 김청용은 사격 선수로는 드물게 왼손잡이라 진종오와 마주보고 경기할 때가 많다. 김청용은 "선배님이랑 마주 보고 해서 항상 좋다"며 "지금까지 선배님이 많이 가르쳐주셨다. 경기 전에도 첫 시리즈를 잘 풀어가면 실력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선배님한테 많이 배우며 계속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21일 인천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청용(왼쪽)과 동메달을 딴 진종오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일정

22일 (월)

- **배드민턴** (계양체육관)
  남자부 단체전 준결승 (12시), 여자부 단체전 결승 (18시30분)
- **야구** (문학야구장)
  조별예선 한국 - 태국 (18시30분)
- **사이클** (인천 국제벨로드롬)
  남자부 스프린트 (10시), 남자부 옴니엄 (10시35분), 남자부 스프린트 (11시10분) 여자부 단체추발 (1□시)
- **펜싱** (고양체육관)
  남자 플뢰레 개인전 (□시), 여자 에페 개인전 (□시)
- **체조** (남동체육관)
  여자 개인 예선·단체 결승 (17시)
- **핸드볼**
  남자부 예선 한국 - 대만 (1□시·선학핸드볼경기장), 여자부 예선 한국 - 태국 (16시·수원체육관)
- **하키** (선학하키경기장)
  여자부 예선 한국 - 카자흐스탄 (18시)
- **유도** (도원체육관)
  남자 90kg급, 100kg급, 100kg이상급 (14시)
  여자 78kg급, 78kg 이상급 (14시)
- **조정**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
  남자 경량급 싱글스컬 패자부활전 (10시), 여자 경량급 쿼드러플스컬 패자부활전 (10시30분), 남자 쿼드러플스컬 패자부활전 (10시40분)
- **세팍타크로** (부천 체육관)
  더블 여자 결승 (9시30분), 더블 남자 결승 (11시)
- **사격** (옥련국제사격장)
  여자 10m 공기소총 (9시) 여자 25m 권총 (9시)
- **스쿼시** (열우물 스쿼시장)
  남녀 개인 4강전 (14시)
- **수영** (문학박태환수영장)
  남자부 배영 50m 개인혼영 200m 계영 800m (9시), 여자부 접영 50m 자유형 100m 평영 200m (9시)
- **테니스** (열우물 테니스장)
  남자부 단체전 준준결승 (10시), 여자부 단체전 준결승 (10시)
- **역도** (송도 2□호 근린공원)
  여자 58kg급 (16시), 남자 69kg급 (19시)
- **우슈** (강화고인돌체육관)
  남자부 남권 (9시) 남곤 (14시) 산타 (19시)
  여자부 태극검 (9시) 태극권 (14시) 산타 (19시)
- **크리켓** (연희크리켓경기장)
  여자 예선 한국 - 홍콩 (14시)

연합뉴스

/연합뉴스

'2연패 도전' 야구 첫경기 워밍업

오늘의 AG 하이라이트

박태환 김장미·신아람 등 금 기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린 한국 야구 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린다.

대표팀은 22일 오후 6시 30분 문학야구장에서 태국과 B조 예선 1차전을 치른다. 24일 대만과의 2차전에 전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표팀은 태국을 상대로 몸 풀기를 한다. 약체이지만 5전 전승으로 우승하기 위해서는 전력에 조금이라도 자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인천을 연고로 하는 SK 와이번스의 김광현을 선발로 내세운다. 5일 휴식 후 열릴 결승전에 선발로 나설 김광현은 태국전에서 50~60개 정도를 던지며 실전 감각을 점검한다.

이번 대회 총 7개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노리는 박태환(25·인천시청)은 수영 남자 800m 계영에 나선다.

사격에서는 여자 25m 권총에 김장미(22·우리은행)가 출전한다. 20일 열린 10m 공기권총에서 기대와 달리 노메달에 그쳤던 김장미는 자신의 주종목인 25m 권총에서 다시 한 번 금메달을 노린다.

신아람(28·계룡시청)은 펜싱 여자 에페에서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을 상대로 멈춰선 마지막 1초 동안 무지막 공격을 당해 결국 "1초의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여자 배드민턴 단체전, 여자 사이클 트랙 단체추발, 유도 남자 100kg 이상급 김성민(27·경찰체육단), 여자 78kg급 정경미(29·하이원), 세팍타크로 남자 더블 등도 금메달을 노리는 종목이다.

/유순호기자

백규정 KLPGA 메이저 우승

데뷔 첫해 시즌 3승

슈퍼루키 백규정(19·CJ오쇼핑·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에서 짜릿한 역전승으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백규정은 21일 경기도 안산의 아일랜드 골프장(파72·6693야드)에서 열린 메트라이프·한국경제 제36회 KLPGA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1개를 보태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4라운드까지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친 백규정은 단독 선두였던 홍란(28·삼천리)과 동타를 이뤄 연장에 들어갔다. 18번홀(파5)에서 벌어진 연장전에서 백규정은 세 번째 샷을 홀 1.7m에 붙였고, 홍란은 볼이 홀 뒤로 굴러가면서 8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겨놨다. 홍란의 버디 퍼트는 홀 앞에서 멈춰선 반면, 백규정은 과감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다.

올해 KLPGA 투어에 데뷔한 백규정은 시즌 세 번째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거두며 김효주(19·롯데)와 함께 다승 부문 공동 선두에 올랐다. 우승 상금으로 1억4000만원을 받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김효주는 2주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날 3타를 잃고 공동 11위(6언더파 282타)에 머물렀다.

/유순호기자

ㄱ

국가대표

[Member of the National Team]

서로 다른 종목이지만 그들에겐 국가대표로서 같은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놀라게 할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양궁,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구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을 키우는 현대자동차그룹 }